



화장실 가꾸기가 문화운동이 되어야 하는 까닭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대우 유 승 호

화장실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의식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화장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자

많은 사람이 학창시절 코를 잡고 얼굴을 찌푸리며 학교 화장실 바닥을 닦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공중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칙이었다. 초등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서까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물론 일제시대 학교를 다니던 우리의 할아버지들까지 이런 벌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화장실,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일본말 '벤조'에서 나온 변소(便所)라는 말이 '화장실'로 바뀌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어릴 때 드나들던 '공중변소'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우리 세대는 장소이름 앞에 공중이라는 말만 붙어도 어딘지 깨끗하지 못한 곳을 연상하게 된다.

별로 잘못된 일도 없으면서 전국의 공중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어, 그 말뜻도 바꿔 놓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8월27일 창립총회를 가진 (사)한국 화장실문화협의회, 협의회에는 한국관광공사와 경기도 수원시를 비롯한 130여개 개인 및 민간단체,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여 하고 있다. 협의회는 2002년 월드컵을 꼭 1천일 앞둔 시점에서 전국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운동을 시작했다.

협의회가 화장실 가꾸기를 '문화운동'으로 전개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의식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점잖은 장소에선 화장실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왔다. 옛말에서도 화장실은 '뒷간', '측간'이었다. 뒤나 옆에는 두어도 앞에 놓을 수는 없었다. 또 '치맛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말처럼 가까이 있어서도 안되었다. 따라서 정면에, 그리고 바로 눈앞에 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장소로 만든다는 게 바로 앞으로 화장실 문화운동의 요체가 된다. 또 화장실이라는 말뜻과 공간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저 청소가 잘 된 화장실이어서 안된다. 누구나 하루에 수차례 드나들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 화장실이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순히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만 쓴다면 너무 아까운 일이 아닐까.

삭막한 일상생활에서 때로 숨을 돌릴 수 있고, 즐거움을 느끼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 그런 장소가 21세기에 지향하는 화장실이다.

깨끗할 뿐아니라 아름다운, 편할 뿐아니라 즐거운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화장실은 오랜 인류 역사동안 부끄럽고 불결한 장소로 이미지가 굳어졌다. 이를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는 일은 문화운동을 통한 의식혁명 외에 방법이 없다.

다른 한가지 이유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배설을 위한 장소가 있다. 공중이 드나드는 화장실만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의식개혁이 뒤따라야 오아시스처럼 나그네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수 있다.

수십만개에 이르는데, 아직도 부족한 편이다. 식당등 업소의 화장실까지 가꾸려면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국력이 총동원됐던 88년 서울올림픽 때도 화장실 개선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호지부지 끝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올림픽 때 간이 화장실 앞에 외국인과 내국인이 뒤섞인 줄이 길게 늘어섰던 광경, 포장마차에서 한국의 정취를 즐기던 외국선수가 공중화장실을 다녀온 뒤 서둘러 선수촌으로 돌아가던 모습 등은 2002년에 다시 보여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삶의 질의 척도가 되기에 민과 官이 힘을 합쳐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

요즘 단골 백화점과 호텔을 화장실을 보고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하물며 2002년 월드컵 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경기를 관전할 관광객들에게 뒤떨어지는 화장실을 보여줄 수는 없다.

한국일보도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의와 함께 전국의 화장실을 가꾸는 데 힘을 다하고 싶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궐같은 큰 화장실 건물을 세우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화장실은 아니다.

또 서울의 일부 초등학교가 화장실 공간에 책상을 갖다 놓고 학습장소로 겸용하는 것도 지나친 일인 것 같다.

그곳에 들어서면 즐거운 생각이 나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 정면에 큰 창을 설치하여, 소변기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홍콩 페닌슬라 호텔의 한 화장실, 또 천장의 색유리를 통해 맑은 날이면 아름다운 햇살을 비추는 송파나루 화장실 같은 곳이면 더 바랄게 없겠다.

나그네의 피로와 짜증을 씻어낼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